

“근대 한국의 독립 개념”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o 문제제기

- 개념사로서 ‘독립’에 대한 접근 시도
- Independence의 영어, 사회과학사전상 정의
- 운동과 정치이념(독립운동, 주권회복, 국가건설)으로서 ‘독립’
- 동시대 다른 시대적 유행어, 모토와의 관련성 : 동양평화, (민족) 자결
-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독립’의 의미

‘독립’ 개념을 구한말과 식민지시기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및 외세의 식민지배로부터의 국가적 독립과 해방의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에 관한 논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내 침략전쟁의 발발을 예방하며 한국 등 식민지배하에 있는 민족들 및 사람들의 국권회복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일련의 구상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전후시기의 ‘독립’ 용어 : ‘동양평화’와의 관련

-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 / 이후 시기
- o 실제 / 명목상의 주권 존재시 : 1910.8 이전
 - 근대: 청으로부터의 자주, 일본, 서구로부터의 자주독립의 추구
 - 20세기초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 o 주권 상실후 ‘독립’ : 목표 -> 주권회복

1) 망국원인의 규명과 自強

朴殷植, 張志淵 등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경우, ‘適者生存’과 ‘弱肉強食’의 시각에서 군사력 등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타국의 식민지를 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實力養成으로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독립국가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실력양성론자들의 경우 한민족의 무능부패와 분열된 열등한 속성 때문에 우세한 일본 민족에 병합당하고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장지연, 박은식의 경우, 계몽, 근대적 국민교육과 산업진흥으로 한민족의 열등한 속성들이 극복될 수 있으며, 실력양성으로 힘을 기르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선의 독립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존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선에서 自強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의로 이어진다. 1906년 장지연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대한자강회의 자강주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생존경쟁 내지 자연도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강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¹⁾ 장지연은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에 기고한 일련의 논설, 즉 「自強會問答」(제2호, 1906.8.25), 「自強主義」(제3-4호, 1906.9.25-10.25), 「團體然後民族可保」(제5호) 및 「國家貧弱之故」(제6-7호, 1906.12.25-1907.1.25) 등을 통해 당시 조선내 자강사상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²⁾ 이들 논설들을 통해 이 시기 자강의 의미는 국권회복, 국력배양을 위하여 교육과 산업을 추진하며, 국민적 단결로 민족과 국권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계몽운동가들은 국권회복의 당위성과 희망을 주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장지연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조선이 외국에 복속하지 않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함을 주지시키시고자 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愛國者)는 비록 외국에 신성한 대철(大哲)이 있다 하더라도 맹세코 그 사람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차라리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고 몸을 가루로 만들어 괴롭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낱만큼의 권리(權利)라도 다른 민족에게 사양하기를 승낙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이것이 아니라면, 그 나라를 위하는 기구가 먼저 망하게 되는 소이인 것이다.”³⁾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장지연은 망국 위기에 처하여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좌절에 빠지지 말고, 사람마다 각자 자강하는 길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축적될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조선의 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 뜻을 둔 선비라면 결코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비록 자강하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제각기 스스로 ‘자강’하는 길(道)에 분발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마치 천리를 가는 자는 반드시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오. 오늘에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그치지 아니하여서 날짜가 오래되고 달이 깊어가며 세월이 쌓이고 해가 거듭된다면 반드시 그 목적하는 점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오.”⁴⁾

또한 朴殷植이 보기에 한국의 국세가 매우 허약하여 노예 신세가 된데에는 崇文賤武의 폐단이 커서 병졸이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일본에는 武士道라고 일컬어지는 尙武的 國風이 있으며, 최근 30여년간 일본의 교육제도가 발전하고 愛國精神과 團體力이 타국에 비해 뛰어났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박은식은 이후로 한국인이 **國家權力을 恢復**하며 民族의 生命을 保存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경우처럼 尙武的 教育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인식하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민과 민족의 계몽을 위해 다음 방안들, 즉 첫째,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국문, 국사, 지리과목을 교육시키며, 둘째, 여성교육과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새로운

1) 朴殷植(1906), 「大韓精神」, 『西北學會月報』제3호 제16호, 『朴殷植』, pp.26-27.

2) 이상의 논설들의 내용은 『張志淵全書』 八, 473-486, 455-466면을 참조하기 바람.

3) 張志淵, 「自強主義」, 『大韓自強會月報』3, 大韓自強會, 1906.9. 『張志淵全書』 八, 459-462면.

4) 張志淵, 「自強會 問答」, 『大韓自強會月報』2, 大韓自強會, 1906. 『張志淵全書』 八, 455-459면.

5)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西友』제10호(1907.9.1), pp.1-6.

근대적 학문을 전국민에게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지연은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계몽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한글의 보급'과 전문학교의 설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부녀자와 아동들을 교육시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한글전용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6)

그리고 박은식은 서구 국가의 독립 및 통일국가 달성과정에서 비스마르크의 小學校敎育과 마치니의 청년敎育 등의 경우처럼 국민의 정신교육을 강화시킨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장차 조선인들이 노예신세를 면하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진흥시킬 것이 주창되었으며, 이러한 저항적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요소로서 '大韓精神', '國魂' 등이 강조되었다.7)

세계의 주요 열강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식민지적 진출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망국을 뒤집기는 힘들고 러일전쟁의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적 상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朴殷植, 張志淵 등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경우, '適者生存'과 '弱肉強食'의 시각에서 군사력 등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타국의 식민지를 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진화론은 당시 애국계몽운동가들에게 조선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을 갖추는 경우 조선의 국권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역설적으로 사회진화론에서 강조하는 적자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에 취해왔던 인간관과 국가관 및 정치지도자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實力養成으로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2) 동양평화와 한국의 독립

○ 청일전쟁 개시후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측면이 지배적이 됨.

- 대청 선전포고시 이토 히로부미 총리대신이 1894.10.10. 임시의회에서 이 전쟁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함.

- 당시 총리대신의 연설문: 평화와 관련되어 독립이 부각됨.

- '동양평화'는 관념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청과의 긴장관계에서 위치지워지는 양상을 띠.

- 이토의 동양평화 : 일본의 국가이익을 지키며, 일본을 동양의 맹주로 하기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의식됨.8)

○ 伊藤博文의 東洋平和論에 대한 安昌浩와 안중근의 批判

당시 일본의 동양평화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伊藤博文의 동양평화 구상을 들 수 있다. 1907년 朝鮮 統監으로 와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安昌浩를 만났을 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동양 제패의 야심을 다음과 같이 교묘한 말로써 표시하였다. 伊藤博文은 일본만으로 도저히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으며, 한국과 청국이 일본만한 역량을 가진 국가가 되도록 하여서 善隣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伊藤博文은 安昌浩에게 삼국의 정치가가 힘을 합하여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자고 제의하였다.9)

6) 張志淵, 「國文關係論」, 『張志淵全書』十, 572-573면.

7) 朴殷植, "大韓精神", 『西北學會月報』 제4호(1906), 『朴殷植』, p.26; "大韓精神의 血書", 『大韓每日申報』 622-623호, 隆熙 원년 9월 25-26일, 『朴殷植』, pp.28-31; "務望興學", 『皇城新聞』, 光武 10년 1월 16-17일, 『朴殷植』 pp.85-88.

8) 石田雄 著, <日本の政治と言葉> 下 '平和と 國家' 중 전편, 서장-제2장 (東京大學出版社, 1989) 중에서.

9) 이상 安昌浩와 伊藤博文의 회견 내용은 나중에 安昌浩의 기억을 李光洙가 정리한 것으로서 李光洙 :

이러한 伊藤博文의 제의를 받고, 安昌浩는 삼국의 정립친선이 동양평화의 기초라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안창호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청일, 러일 양 전쟁후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없애면 한국인들은 일본을 원수로 볼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창호는 伊藤博文에게 일본이 청국을 부축하며 도울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독립을 회복한 후에 하라고 요구하였다.¹⁰⁾ 위와 같이 안창호와 伊藤博文이 나눈 회견 내용을 통해 볼 때, 안창호는 일본이 추구하는 소위 동양평화는 일본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한국, 중국, 일본이 독립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호공존적 동양평화가 일본도 살리는 길이라고 보았다.

1909년 하얼빈 의거이후 안중근은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명분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伊藤博文의 시정방침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립은 요원하며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방침이 개선되어, 동양평화가 한일 양국간에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¹¹⁾

일제의 한국 병합이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은 당시 일본의 동양평화론을 비판하면서, 일본 주도하의 한중일 3국간 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질서가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일본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의 다른 표현으로서 한국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비해서, 신채호, 박은식 등 한국인들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은 이와 반대로 한국 독립의 보장만이 동양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하는 논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o 申采浩의 東洋平和 構想과 韓國의 獨立 主張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이후 조선의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신채호는 일본의 동양평화론의 위선을 지적하여 비판하면서, 동양평화를 위한 방법이 조선의 독립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일 동양의 평화를 말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의 독립만한 것이 없다. 조선이 독립하면 일본은 방자하게 탐욕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되고 사방을 경영하여 그 힘을 모아 바다와 섬을 보호하게 된다. 러시아의 과격과 또한 약소민족을 돕는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날개를 접어 어지러운 국면을 정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동양평화의 요의이다.”¹²⁾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양평화론은 비판한 신채호와 그가 비판했던 대한자강회의 동양주의는 모두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론을 지배한 사회진화론에서 출발하여 구미 중심의 20세기초 국제정치무대를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열국 경쟁과 약육강식의 무참한 희생물이 된 한국이 국권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의 서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동양주의는 전혀 상반된 길을 모색하였다. 일본의 동양평화론의 영향을 받은 동양주의는 일본의 동양평화론을 방패삼아 우선 교육과 산업을 통해 새로운 문명표준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낙관론을 전개하였다. 반면 국가주의론은 구미의 약육강식적 제국주의 위협에

《島山 安昌浩》, 《李光洙全集》第13卷, 서울: 三中堂, 1962, pp.26-27에 실림

10) 李光洙 : 《島山 安昌浩》, 《李光洙全集》第13卷, 서울: 三中堂, 1962, pp.27-28.

11) 《安重根 公判記錄, 第5回 公判-辯論 및 最後陳述-》, 1910年 2月 12日字 중에서. 신용하 編, 《安重根 遺稿集》, 서울: 역민사, 1995, 第287-291頁. 安重根의 東洋平和論은 신용하 編 : 《安重根 遺稿集》, pp.169-180에 실림.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쓰게된 배경과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金顯哲 : 《20世紀初 韓國人의 對外觀과 安重根의 「東洋平和論」》, 安重根義士記念事業會 編 : 《安重根과 그 時代: 安重根義舉 100周年 記念研究論文集 1》, 서울: 경인문화사, 2009.3을 참조하기 바람.

12) 申采浩, 《朝鮮獨立及東洋平和》, 《天鼓》創刊號, 1921年 1月. 原文의 한글 翻譯은 獨立記念館 韓國獨立運動史 情報시스템에 실린 翻譯文 內容을 참조함

서 벗어나려고 뒤늦게 치열한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어선 일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³⁾

○ 朴殷植의 共存主義의 平和觀과 韓國 獨立의 必要性 強調

박은식의 경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소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당시 국제질서의 일반적 양상으로 파악하였다.¹⁴⁾ 몇 년이 지난 1915년 중국 상해에서 출간된 朴殷植의 『韓國痛史』에서는 1907년 제2차 헤이그(Hague) 만국평화회의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박은식은 각국 모두 욕심을 부리고 호시탐탐 약소국을 침략, 병탄하여 잔중을 박멸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니, 어찌 평화주의로써 약소국을 구출하여 횡포를 억제하여 멸망하는 것을 부흥시켜주며, 절단되는 것을 계승시켜 공법을 밝혀주고 正道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라고 한탄하였다.¹⁵⁾

당시 일제의 한국 강점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박은식(朴殷植)은 동양의 진정한 평화가 일본에 의한 한일 양국의 병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존주의(共存主義)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독립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박은식은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 불신과 두려움을 주었으며, 결국 동양 평화 공존의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양국 병합은 그 주요 목적이 동양평화에 있다고 일러 말하는데, 이른바 ‘동양평화’란 어떤 것인가? 과연 한국인의 국가적 희생과 민족적 불행이 필요한가? 한국인의 국가적 생명을 끊음이 과연 동양평화의 영구적인 밑거름이 된단 말인가? 진정한 동양평화란 으레 共存主義의 터전에 입각하여 확고하게 公議로써 이뤄지며, 결코 한 나라의 욕망이나 한때의 세력으로 함부로 남의 나라를 併呑해서 성립되지 아니한다. (중략)

아, 한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에 동양 全局이 분열되어 상호 反目함으로써, 필경에는 다함께 백인종의 횡포아래 쓰러지게 된다면, 일본은 실제로 그 책임을 져야 하리라. 또 안으로 원한과 분노를 품고 일본의 굴레에서 한시 바빠 벗어나려는 민족에게 군경으로써 위압을 가하고, 밖으로는 중국의 4억 인구에 하여금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危懼心을 가지게 하여, 상하의 인민이 합심하여 일본을 배척하게 된다면, 동양평화 공존의 원칙은 영원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¹⁶⁾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1910년이후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소위 일본의 동양평화론이 일본의 한국과 중국 병합론으로 귀결되었음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한국의 독립없이 동양평화는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동양평화론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었다.¹⁷⁾

당시 ‘동양평화’라는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당시 일본의 伊藤博文 등 ‘동양평화’를 주창하는 세력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실제 행동한 것을 보면,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그 연장선상에서 ‘동양평화’ 구상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슬로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은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국가 간 신뢰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동양평화와 세계평

13) 河英善 : 《近代韓國의 平和 概念 導入史》, 河英善 外 著 : 《近代韓國의 社會科學 概念 形成史》, 서울: 創批社, 2009, pp.244-245.

14) 朴殷植 著, 南晚星 譯 :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 서울: 서문당, 1979, pp.138-139.

15) 朴殷植 : 《韓國痛史》, 1915. 白巖朴殷植先生全集編纂委員會 編 : 《白巖朴殷植全集》 第1卷, 서울: 동방미디어, 2002), pp.1010-1012.

16) 《通告 日本書》, 朴殷植 著, 南晚星 譯 :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 서울: 서문당, 1979, pp.174-176.

17) 李昊宰 : 《韓國人의 國際政治觀-開港後 100年의 外交論爭과 反省》, 서울: 법문사, 1994, pp.184.

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한국 지식인들은 독립선언문 또는 신문을 통해 일본의 동양평화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 및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이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병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련의 글들에서는 식민지 해방과 지역 질서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의 연계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의 선언서나 박은식, 안창호 등의 관련 글들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정치적으로 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한 지가 강조되었다.

3. 일제강점기 '독립'에 이르는 길 : 민족자결

- o '독립' 개념 수용의 다양한 경로 : 일본, 미국, 서구, 러시아 등
 - 미국
 - 일본유학생의 독립관 : 요시노 사쿠조의 영향

o 대정시기 민주주의화(민본화)와 평화주의의 상관관계 : 1918년 <중앙공론> . 4개 유형화

I) 軍國화에서 민본화가 역사적 진화임 ii) 양주의의 충돌을 우려.

iii) 민본화에 의한 군국화를 현실화함. 국가총동원의 준비. 민본화에 의한 거국일치가 필요

iv) 吉野作造(요시노 사쿠조) : 군국주의와 상대립하는 것은 평화주의이며, 민본주의와 상대립하는 것은 관료주의라고 봄. 민본주의와 군국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경고함.

- 당시 일본의 '국민의 신념'을 전제로서 보면, 대중의 배외적 심정이 민본화에 의해 동원되어질 가능성이 큼. 1922년 요시노는 '일본에서 특별히 평화사상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서 일본에 특유한 反평화사상의 전통으로서 막말의 배외사상등을 언급함. 이러한 反평화사상의 전통위에 대중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 배외주의와 대중적 배외주의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배외주의적 심리가 고양진전되어질 위험성이 생김. 대정시대에는 요시노의 예견이 예외적임. 논단에는 낙관주의적 문화주의, 교양주의가 지배함.

o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무장적 평화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보인 낙관적 평화관이 관념적으로 문단에 지배적인 시기에 대중의 배외주의적 심정을 동원하는 군국화의 기초가 형성되어짐. 국민교육 수준에서

o 요시노: 일본의 특유한 반평화사상의 전통이 군부라는 정당화되는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에 의해 장악되어져 평화주의에 직접적 도전이 됨. 18)

- o (민족)자결의 주장과 3.1독립선언문
- o 자치론

o 『신한민보』 1919년 6월 2일자 "대통령의 십사조목과 우리독립의 관계"라는 제목하의 사설에서 월슨의 14개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민족자결주의를 뜻한다고 해석되어왔던 5조의 내용을 '모든 식민지에 대한 개정은 그 식민지 백성의 원하는대로 처결할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역사적14조목

제1조 평화조목을 드러내어놓고 의결하여 공중에 드러내어 좋을 일

18) 石田雄 著, <日本の政治と言葉> 下 '平和と 國家' 중 전편, 서장-제2장 (東京大學出版社, 1989) 중에서.

제2조 평화시대나 전쟁시대나 해상 자유를 인증할일

제3조 상업상 동등권을 유지할일

제4조 군사상 모든 세력을 제감할일

제5조 모든 식민지에 대한 개정은 그 식민지 백성의 원하는 대로 처결할일

제13조 폴란드의 독립을 건설케 하되 해상에 자유 교통할만한 근거지를 허락할 일

제14조 국제연맹회를 설립하여 큰 나라이나 적은 나라를 물론하고 한결같이 그 독립과 영토보전을 담보할일

“우리 민족에게도 오는 기회가 목전에 있도다.”

“...그런즉 우리 한인은 장차 오는 10월에 워싱턴에 집회하는 국제연맹에 호소하기 위하여 월슨 대통령의 14조목 가운데 제3조와 제5조와 제14조를 들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모든 관계를 미국사람들에게 알리어 주어야 될터인데 이를 하자면 우리가 말로나 글로나 부지런히 힘써야 될 것이고”

o "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3.1 운동 이전인 1918년(戊午年) 노령 북만주 등지에 망명해 있던 유지들이 작성한 선언문. 이 선언서는 3.1운동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합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도의를 행할 것을 권고함.

“...하늘에 순종하고 인도에 응해야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죄악을 선포하고 징계하노라.

1. 일본의 합병 등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사행(肆行)함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요,

2. 일본의 합병 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불법 무도한 무력폭행을 극도로 써서 된 것이니, 이는 국제법규의 악마이며,

3. 일본의 합병 결과는 군대 경찰의 야만적 힘과 경제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강박하고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장(沮喪)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와 정의 법리에 미쳐서 만국의 입증으로 합병 무효를 선포하며 그의 죄악을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슬퍼라! 일본의 무력이며, 소징대계(小懲大戒)가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어다.

각기 원상대로 회복함은 아시아의 행(幸)인 동시에 너희도 행이려니와 만일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전부 화근이 너희에 있으니 복구자신(復舊自新)의 이익을 반복 효유하리라. (중략)

우리 대중이여, 공의의 독립자는 공의로써 진행하거끔 일체의 방편을 다하여 군국전제를 삭제하고 민주 평등을 세계에 널리 실시함이 우리 독립의 제일의(第一義)이다.

무력 검병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의 공도를 진행하는 것은 곧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밀맹사전(密約私戰)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복국(復國)의 사명**이다. 권리와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며 남녀·빈부를 고르게 조화하며, 등현등수(等賢等壽)를 지우노유(知愚老幼)에게 평균하게 하여, 사해 인류를 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건국의 기치(旗幟)이다. 나아가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구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 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하는 궁극의 의의이다.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단군황조께서는 상제(上帝)좌우에서 명을 내리시어 우리에게 기운(機運)을 주셨다. (중략)

아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 된 본령을 자각한 독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요,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립인 것을 명심하

도록 황천의 명명(明命)을 받들고 일체의 사악으로부터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¹⁹⁾

o 2.8 독립선언서

조선유학생학우회 등은 1919년 1월 6일 일본 동경 조선기독교교회관에서 웅변대회를 열고, 한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해서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결의, 최팔용(崔八鏞), 김도연(金度演), 백관수(白寬洙) 등 10명의 임시실행위원을 선출, 최팔용은 운동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기초하고 송계백(宋繼伯)을 국내에 밀파, 최린, 송진우 등과 만나 경위를 보고, 국내 운동을 일으킬 것을 요청하였다. 역사상 동양 평화의 위협자였던 러시아나 중국은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일본이 최대의 동양평화를 어지럽힐 환란의 근원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중략)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음을 지각하기 때문이라 일찍이 1895년에 청일전쟁의 결과로 조선의 독립을 술선하여 승인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여러나라들이 독립을 승인하였을 뿐더러 이를 보존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도다.(생략)

조선은 그 은의를 감사하며 예의(銳意)로 제반 개혁과 국력의 완실을 도모하였다. 당시에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녕을 위협할 때 일본은 조선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노일전쟁을 벌이니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은 이 동맹의 주지인지라. 조선이 더욱 그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없었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면서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함으로써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이라는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중략) 이에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희생이 되었도다.

실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나온 것이니 이와 같이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 사상에 특필할 인류의 대치욕이라 선언하는 바이다.(중략)

이와 같이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서로 배치되며 항상 그 해를 보는 자는 우리민족이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생존할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후로 동양 평화의 견리(見利)로 보건대 그 위협자이던 러시아는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자유를 기초로 한 신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시 그러하며 겸하여 차차로 국제 연맹이 실현되면 다시는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최대 이유가 소멸하였을 뿐더러 이에 따라 조선 민족이 무수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일본에게 합병당한 조선은 오히려 반대로 동양의 평화를 교란케 하는 환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치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한사람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땅에 흘릴 것이니 어찌 동양 평화의 화원(禍源)이 아니리오. (중략)

이미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이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이로써 독

19) 단기 4251년 11월 일. 만주로영유지일동(滿洲露領有志一同). 김교헌(金敎獻) 김동삼(金東三) 조용은(趙鏞殷) 신규식(申圭植) 정재관(鄭在寬) 신 정(申 稷) 여 준(呂 準) 이범윤(李範允) 박은식(朴殷植) 박찬익(朴贊翊) 김좌진(金佐鎭) 이시영(李始榮) 이상룡(李相龍) 윤세복(尹世復) 문창범(文昌範) 이동녕(李東寧) 신채호(申采浩) 허 혁(許 赫) 이세영(李世永) 유동설(柳東說) 이 광(李 光) 안정식(安定植) 김학만(金學滿) 이대위(李大爲) 손일민(孫一民) 최병학(崔炳學) 박용만(朴容萬) 임 방(林 邦) 김규식(金奎植) 이승만(李承晩) 조 옥(曹 煜) 김약연(金躍淵) 이종탁(李鍾倬) 이동휘(李東輝) 한 흥(韓 興) 이 탁(李 沍) 황상규(黃尙奎) 이봉우(李奉雨) 박성태(朴性泰) 안창호(安昌浩).

출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립을 기성할 것을 선언하노라.

결의

1. 본단은 한일합병이 오족(五族)의 자유 의사에 출(出)치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의회의 결의는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미국 평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작용하기를 청구함. 전(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대공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해(各該)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하고 동시에 위원 2명을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함. 전(前)의원은 이미 파견된 오족의 위원(安昌浩, 李承晚, 鄭漢景, 金奎植 등 제씨)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전(前) 제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血戰)을 선포함.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慘禍)는 오족의 기책(其責)에 임(任)치 아니함.²⁰⁾

「3·1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의 정당성을 첫째, 민족의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생존권 차원, 둘째, 동양평화의 차원, 셋째, 세계평화의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국제 질서의 주권평등 원리를 내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양평화, 세계평화의 방법을 체득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세계 대세를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인륜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문화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한국이 독립된 나라임과 한국 사람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생략)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이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대함을 좌우하는 사역 중국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샘을 갈수록 깊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한국독립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다.”²¹⁾

1919년 3.1독립선언문에서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용운도 “朝鮮獨立의 序”(1919~1920)에서 “조선 민족의 독립자결은 세계평화를 위함이며 동양평화에 대해서는 실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 글에서 한용운은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로서, 첫째, 조선 민족의 실력, 둘째, 세계 대세의 변천, 셋째, 민족 자결 조건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로서, 첫째, 민족자존성, 둘째, 조국 사상, 셋째, 자유주의(자존주의와 크게 다름), 넷째, 세계에 대한 의무 라는 네가지를 언급하였다. 그중 ‘세계에 대한 의무’ 부분을 좀더 상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 1919년 2월 8일. 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대표. 최팔용(崔八鏞).백관수(白寬洙).윤창석(尹昌奭).송계백(宋繼伯).이광수(李光洙).김칠수(金喆壽).김도연(金度演).이근우(李謹愚).이근(李根).김상덕(金尙德).서춘(徐椿). 출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21) 출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세계에 대한 의무

민족 자결은 세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민족 자결주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아무리 국제 연맹을 조직하여 평화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 자결이 이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싸움이 잇달아 일어나 전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책임을 조선 민족이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선 민족의 독립 자결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요, 또한 동양 평화에 대해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것은 조선 자체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조선 민족을 몰아내고 일본 민족을 이식코자 한 때문이요, 나아가 만주와 몽고를 탐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꿈꾸는 까닭이다. 이 같은 일본의 야심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을 경영하려면 조선을 버리고는 달리 그 길이 없다. 그러므로 침략 정책상 조선을 유일한 생명선으로 삼는 것이니 조선의 독립은 곧 동양의 평화가 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5. 조선 독립의 자신

이번의 조선 독립은 국가를 창설함이 아니라 한때 치욕을 겪었던 고유의 독립국이 다시 복구되는 독립이다. 그러므로 독립의 요소 즉 토지 국민 정치와 조선 자체에 대해서는 만사가 구비되어 있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각국의 승인에 대해서는 원래 조선과 각국의 국제적 교류는 친선을 유지하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다. 더욱이 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은 정의 평화 민족 자결의 시대인즉 조선 독립을 그들이 즐겨 바랄 뿐 아니라 원조조차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승인 여부뿐이다. 그러나 일본도 승인을 꺼려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중략)

만일 일본이 침략주의를 여전히 계속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인하면, 이는 동양 또는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일로써 아마도 미 일, 중 일 전쟁을 위시하여 세계적 연합 전쟁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²²⁾

이 시기 진정한 의미의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동양 3국의 역할에 대해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대개 동양평화라 하면 동양에 입국한 자 다수 하나 적어도 일본과 조선과 중국의 삼자를 가리켜 동양이라 하며, 그 평화를 가리켜 동양평화라 한다. 그런즉 동양평화는 일본만의 평화와 발전이 아니라 동양 삼개 지방의 평화와 발전을 의미함이다...(중략) 이제 동양평화를 분석하여 논할진대 내부적 동양평화와 외부적 동양평화가 있으니, 전자는 동양 3개 지방의 상호간 또는 각 지방내의 평화를 의미함이요, 후자는 동양외 국민이 감히 동양을 침범치 못함이라...(중략) 동양의 단결과 평화적 발전을 열망하니 그 방도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각 민족의 권리와 희망을 절대로 존중하며 승인하며 각히 평등한 지위에 입하여 자유적 정신으로 연합함에 있다고 한다.”²³⁾

위 글에서는 동양평화를 구실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대륙정책을 펼쳐온 일본이 한, 중, 일 3 민족이 평등한 지위에서 상호 제휴하고(내부적 동양평화), 외세에 대해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외부적 동향평화), 진정한 동양주의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2)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는 1919. 7.10 서대문 감옥에서 일본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기초하여 제출하였으며, 『독립신문』 52호 1919.11.4일자에 전문이 게재됨. “朝鮮獨立에 對한 感想의 概要”의 현대문으로의 번역본은 만해기념관 홈페이지(http://www.manhae.or.kr/idd.html?html=idd1_m15.html) 참조.

23) 『東亞日報』, 1920.6.25자, “東洋平和의 要諦.”.

이와 같이 1910-2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독립없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4. 해외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의 '독립'론 : '건국'과의 관련

- 상해임시정부의 '독립' 논의 / 좌우 진영의 차이와 합작운동
- 독립 : 국가건설(건국)의 방법, 내용의 차이 및 분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직후 '세계열강의 외교적 지원 획득'을 목표로 초대 외무총장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1919)에 대한 독립청원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파리 한국대표부 위원, 신한청년당 대표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이 서명하여 제출한 「청원서」²⁴⁾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국제관계, 국제법 등을 거론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독립은 인정됐다

한 분리되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한국의 계속적인 존재가 일본·미국·영국 및 기타 외국들에 의해 그들 각국이 한국정부와 체결한 평화 및 통상조약에서 승인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서울에서 조인된 미국과의 조약에서 다음 사실이 똑똑히 합의되었다.

만일 다른 외국이 부당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체결국의 어느편 정부든지를 다룰 경우에는, 다른 체결 상대국은 그 경우가 통보되는 한, 그리하여 자기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선의의 중재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895년 4월 17일 조인한 마관조약(馬關條約)에서 일본은 충분하고 완전한 한국의 독립과 자치에 대한 중국측의 명확한 인정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1902년 1월 30일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협정에서 일본과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확인했으며 실질적으로는 보증하였다. 끝으로 1904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간에 맺은 공수(攻守)동맹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특수하게 보증하였다.

국제적 교리(doctrine)로서의 한국의 독립

이같은 조약들은 한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의 분리된 실재를 확인하고 비준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나라도 자국의 행동을 다른 국가들에 의한 중국적인 교정을 받게 되는 일 없이는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예외가 없다는 하나의 국제적 권능과 재재의 기초 위에서 한국의 독립을 확립하였으며, 그 교리는 존중되고 있다.”²⁵⁾

24) 1919.5.10 김규식이 클레망소(G. Clémenseau) 강화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공고서」등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청원서 : Korean Delegation, The Peace Conference,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 For Liberation From Japan and For the Reconstitution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Petition, Paris: April, 1919” (“일본으로부터 해방 및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재편성을 위한 한국 국민과 민족의 주장”).

25)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1)- 국제연맹편』(국가보훈처, 1991), pp.52-58. 그중 p.55 Japan's Continental Policy, The Policy in Operation 참조. 김규식이 제출한 「청원서」(제목: “일본으로부터 해방 및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재편성을 위한 한국 국민과 민족의 주장”)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국제관계, 국제법 등을 거론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함(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 국학자료원, 1999, 153-154쪽). 이 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국내,

1919년 김규식이 한국국민회의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각서의 초안으로서,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일이 유럽을 지배했던 것과 같이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벨기에처럼 국제적으로 독립을 보장해주어야 극동에서 항구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규식 박사의 對韓 관련 메모-제안된 각서의 초안 (Suggested Draft of Memorandum)

(생략)

일본에 의해 학대받고 있는 2,300만 한국인들의 고통을 고하는 아래 서명한 본인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요구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가장 불행한 한국 국민이 정의, 자유, 인간애와 평화를 또한 공유하여 극동과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자신의 공과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위해 이 유명한 회의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한국은 실질적으로나 정당하게 무력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정복받은 적이 없다. (중략)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 당연히 독립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중략) 세 번째로 세계 곳곳에서 균등한 기회와 자유롭고 공개적인 우위를 위한 범세계 경제정책에 관해 많이 언급되고 저술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은 때때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순진히 통상적인 원조로 한국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자원을 개발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중국에 자유로운 도움을 줌으로써 억제될 수 있다. (중략) 네 번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본주의적인 점, 곧 인간 정의의 문제이다. (중략) 다섯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나 “그러면 한국인들이 일본의 군사정부하에 있는 것보다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보다 좋아한다는 것이 정말 한국국민 전체의 의지입니까?”라고 물을 지 모른다. (중략) 우리는 민주형태의 정부 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통치권(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중략)

한국국민을 대표하는 한국국민회의 대표단 신한청년당의 대표자 ...“²⁶⁾

앞의 청원서에 첨부된 이 비망록²⁷⁾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1910년 8월 22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한국이 독립국가로 복원되길 바라며, 또 일본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한국과 한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파리강화회의에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한국의 역사, 한반도 주변정세, 일본의 탄압 등 23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의 주권회복을 위한 조선인과 조선의 독립 청원서.

중국, 시베리아, 하와이군도, 미국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1,870만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브레스트-리토틴스크조약 이전에 유럽의 동부전선에서 동맹국을 위하여 싸운 5,000명 이상의 한국인의 이름과 책임하에, 파리 한국대표부 위원, 신한청년당 대표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이 서명하여 제출함.

26) 출전: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I)- 국제연맹편』(국가보훈처, 1991), pp. 293-301에서 재인용.

27)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별첨 메모란덤” (1919년) : Korean Delegation, The Peace Conference,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 For Liberation From Japan and For the Reconstitution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Memorandum, Paris: April, 1919”

I. 조선의 주장

조선인과 조선은 한 조선인이-그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 일본의 강요아래 1910년 8월 22일에 승인한 조약(이 조약에는 천오백만 의 인구를 가진 “조선의 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본의 천황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양도 할 것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을 무효화해줄 것을 파리평화회의에 청원하는 바이다.

현 청원서는 파리평화회의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바이다.

파리평화회의는 미국 윌슨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에 근거하여 회원국가간의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분명한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 1918년 1월 8일에 미 국회에 보낸 그의 메시지에서 명시했듯이, “모든 민족과 국적에 대한 공평한 정의의 원칙과 한 국가가 강대국이거나 약소국이거나 관계없이 상호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맹 연합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정의에 대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14개 조항을 파리평화회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 정의 구조”의 “기반”으로써 받아들였다.

이 정의의 원칙은 일본천황이 지속적으로 조선 국민과 조선의 동의 없이 “조선 전체에 대한 주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명백히 위반되었으므로, 전술한 1910년 8월 22일 조약의 무효화를 즉시 선언하는 것은 파리평화회의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략)

III. 조선의 독립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조선의 존속은 1876년 2월 27일 한성에서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약)에서 일본에 의해 확증되고 승인되었다.

“조선 왕조”로써의 조선의 독립은 1882년 5월22일에 조선정부와 체결된 “한미통상협정”에서 미국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이 조약에는, “만약 다른 강국들이 양국을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대한다면 다른 일방은 우호적인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호의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구절이 포함되어있다.

조선의 주권은 조선정부와 체결한 평화 통상 조약에서 대영제국과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또한 인정되고 승인되었다.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일본은 명백하게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치권”을 인정하도록 중국에게 강요하였다.

또한 조선의 독립은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된 최초의 영일동맹 협약에서 일본과 대영제국에 의해서 확증되고 보장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4년에 일본정부와 조선정부사이에 체결된 공수동맹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했고 조선은 러일전쟁 후반에 일본에 물자의 원조를 약속했다. (중략)²⁸⁾

“(임정의) 선포문” (1939.12.31)

“(중략) 기미년 3월 1일부터 중일전쟁이 개시되던 정축년 7월 7일 노구교사건까지 범 19년간을 우리 독립전쟁의 제4기라 하겠다. (중략) 그때의 독립전쟁은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어 어느 한 나라도 우리에게 현저한 협조를 주지 않았다.(소련의 금전원조와 유럽, 미국, 아시아 우방의 정신적 원조 외에). 그 이유는 국제연맹이란 기구와 연합국 승리라는 명의하에서 전승자의 식민지 분할이 일종 공리(公理)며 원칙이란 강도적 공동양해와 중국 및 소련이 일본에 대하여 타협적 정책을 취하였던 고로, 적 일본은 국제적 엄호를 받아 동아의 총아(寵兒)가 되었던 때문이다.

28)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I)- 국제연맹편』(국가보훈처, 1991), pp.59-72. 그중 p.64 V. Prussia and Japan, p.65, VIII. Japanisation and Prussianisation 참조

(중략) 정축년 중일전쟁이 개시된 후부터 우리의 독립전쟁은 제5기에 들어섰다. 을사년부터 정축년까지 33년간에 독립전쟁 제1기로부터 제4기를 마치고 정축년부터 제5기의 독립전쟁이 개시되었음은 일면으로 우리 민족의 전쟁이 장기적 지구적임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며, 일면으로 우리의 독립전쟁이 성공할 시기에 도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²⁹⁾

재중국 자유한인대회 선언 : 1943.5.10

이번 중일(中日) 전쟁 및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전 민족의 여러 계급, 여러 당파가 모두 한국 임시정부의 주위에서 통일 단결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하고도 맹렬한 반일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전쟁의 결과로 일본 침략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한국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서로 믿고 있다.(중략) 더욱이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장개석(蔣介石) 위원장과 입법원장(立法院長) 손철생(孫哲生) 선생 및 기타의 정치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한국의 독립을 원조할 것을 성명하였으며, 미국의 루스벨트(羅斯福;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과 (顏露爾) 선생과 (拉鐵摩爾) 선생 및 기타 여러 지식인사들도 한두 차례 한국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략)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미국 시카고(芝加哥; Chicago)의 태양보(太陽報) 런던(倫敦; London) 특파원은 이번의 영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워싱턴(華盛頓; Washington) 회담에서 전후의 원동(遠東) 문제를 토의한 소식 한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지극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말에 따르면, 전후의 한국은 독립 이전에 잠시 국제사회의 보호기간을 거친다는 것인데, 이 소식은 이미 중앙사(中央社) 4월 27일 워싱턴발 특별전문을 통해 중경(重慶)의 각 신문에서도 발표되었다. 우리가 보기에 영국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부인(否認) 성명을 하기 이전이지만 이 소식이 자못 그 근거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는 이 소식에 근거하여 정중하게 우리의 전후(戰後) 한국문제에 관련된 입장과 태도를 발표한다.

제 1, 한국 민족의 일치되고도 단호한 요구는 곧 절대적으로 완전한 독립과 자유이다. 어떠한 국가의 또는 어떠한 국제적인 간섭과 보호, 공동관리라도 단호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오랫동안 국가생활을 영위해 왔던 민족이다. 전후의 새로운 평화의 세기에 응당 완전히 독립된 국가생활을 향유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

제 2, 한국은 8만여 평방미터의 국토가 있으며, 3천만의 인구가 있고, 매우 풍부한 생산물들이 있는데다가 현대적인 공업 시설들이 있어서, 전후의 동맹국간의 평등하고 효혜적인 상호 원조의 조건 아래서라면 매우 빠르게 강성한 민족국가를 건립할 수가 있으며, 결코 다시는 어떠한 세력의 침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제 4, 한국은 원동(遠東)이라는 정치지리적 위치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독립 또는 패망은 원동(遠東) 지역 평화의 유지와 파괴를 결정짓는다. 과거에도 이러하였고 장래에도 또한 틀림없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전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은 장차 원동 지역 내지는 태평양 지역 평화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략) 더욱이 중국, 소련 영국, 미국 등 주요 동맹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대서양현장 중의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한국에 적용해야 하며, 전시(戰時)와 전후(戰後)에 반드시 한국 민족의 독립과 자주의 운동을 원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간절한 희망은 관련된 동맹국 정부가 위에서 기술한 이른바 국제보호라는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부인(否認) 성명을 하고, 아울러 전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즉각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하여, 우리 한국 민족이 주요 동맹국에 대한 신임을

29) 김구, 『백범김구선생 언론편집(상)』, 백범학술원총서, 나남출판, 2004, 76-79쪽.

강화하도록 하며, 아울러 우리 3천만 한족(韓族)으로 하여금 더욱 더 맹렬하게 항일전쟁을 진행케 하여 반(反)침략전쟁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고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다져야 한다.³⁰⁾

임시정부에서 중국 언론기관에 논문을 게재하여 영국, 미국의 신탁통치합의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예로서, 외교부장 조소앙의 이름으로 중국 각 신문에 이의 반대, 반박문을 기고 게재하였다.³¹⁾ **조소앙의 “전후 문제 중 한국에 관한 풍설을 반박함”**라는 글로서, 『新韓民報』 1943.7.1 자에 번역된 것의 내용 일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어느 신문에 게재된 전후 계획은 장차 한국을 國際管理 즉 委任統治 하에 둘 터이라고 하였다. (중략) 다만 우리 민족이 반드시 마땅히 자립할 것과 또 연맹국의 전략과 전후 원동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정중히 聲明하는 것은 전후 한국은 당연히 完全 獨立을 가져야 하고 결코 국제공관하에 두어 위임통치를 받게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一, 한국은 구만방리 토지와 이천삼백만의 인민을 가졌고, 아시아에서 독립 자존한 지가 벌써 5천년이다. 오랜 문화와 풍부한 물산과 본신 능력이 넉넉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자립 자강해서 원동의 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

二, 이 까닭에 향자 한국의 독립주권이 일본의 침탈을 입은 후로부터 당당한 독립국민이 이 민족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여 왜적과 피흘리며 싸워 왔음이 지금까지 38년에 계속 분투하며 뜻이 조금도 꺾이지 않는 유일한 목적은 다만 완전독립을 회복하는데 있다.

三, 대서양 약장은 벌써 전후 세계 각 민족이 다같이 자결을 얻어 4대 자유를 누릴 것을 정해 놓았고 대통령은 이 약장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제삼 성명하였다. 이제 연맹국의 신용과 맹세의 보존을 위하여 축심과 왜적을 박멸하는 날에 당연히 한국의 독립주권을 가져 한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 결코 한인으로 하여금 독립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남의 통치하에 있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四, 종래 원동의 평화가 파괴된 까닭이 실상 왜적이 한국을 파괴함으로써 비롯하였으니 만일 전후 원동 평화를 확실히 보전하려면 먼저 한국의 독립을 확실히 보존해야 하고, 그 정책은 한국을 국제 공관 하에 두는데 있지 않고 한인에게 완전 독립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해야 동아의 병장을 굳게 지키게 할 것이다.

이상 네 가지의 이유는 연맹각국도 또한 명료한 바, 그들이 옹당 한국을 국제공관 하에 두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로서 풍설을 반박한다.

다시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고하나니 일시 풍설을 듣고 낙망하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더욱 분발 단결하여 우리의 정신을, 역량을 다듬어 연맹국의 작전을 후원하여 우리 한인이 완전 독립할 자격이 있는 것을 표시하면 축심과 일본강도를 격파하는 날에 우리는 당연히 독립을 얻을 것이다.“

30)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 조선(朝鮮)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 총연맹(總聯盟), 한국(韓國)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한국청년회(韓國青年會), 대한민국 25년 5월 10일, 서력(西曆) 1943년 5월 10일.

31) 장석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상)』(국가보훈처, 1999), p.328에서 재인용.

5. 맺음말

- 담론, 슬로건, 목표의 혼재
- * 독립운동 목표 및 방법론상의 제시 : 각 개별인물의 '동양평화'에 대한 이해속에 '독립' 언급
- * 1차대전이후 새로운 지역평화 구축과 조선의 '독립'과의 상관관계
 - 1) 기존 일본중심 질서하 부분적 변화 : 한국내 현상유지적 논의 (장지연 등 '친일'의 논란)
 - 2) 일본의 동양주의 비판 및 타국과의 연대 배경: 신채호 (무정부상태로 변화?)
 - 3) 한중간 연대를 통한 지역평화의 모색 (박은식): 전통적 화이질서로의 복귀 또는 변용?
 - 유인석의 중국중심적 국제질서관과 한중일 삼국 연대론
 - 박은식의 평등주의적 평화관과 한국 독립의 모색
 - 4) '동양평화'대신 '(독립)전쟁' 추구
 - 5) 그 외 논의
- 향후 본격적 연구과제